

조선족 이주민의 기독교 용서 상담 사례연구

황 철*

국문초록

본 연구는 조선족 이주민이 경험하는 대인관계 상처와 갈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안경승의 5단계 용서 이론(가치화, 존중화, 보상무효화, 신뢰화, 화해화)과 팀 켈러의 수직적·내면적·수평적 용서 개념을 통합한 기독교 용서 상담의 효용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전남편의 외도, 어머니의 반복적 비교 및 비난, 언어·신체적 폭력 등으로 심각한 상처를 입은 세 명의 조선족 이주민(두 명의 여성, 한 명의 남성)이 2024년 3월부터 5월까지 총 10회기 상담에 참여하였다. 상담 과정에서는 감정 일기, 용서 선언문, 용서의 편지쓰기, 기도문 등 다양한 기법이 복합적으로 활용되었으며, 참여자들은 각 회기마다 감정과 상처를 밀도 있게 탐색하고 신앙적 의미를 재발견하는 과정을 경험했다. 특히 각 기법을 통해 억눌린 감정을 언어화하고 자기효능감을 회복하였으며,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점진적인 긍정 변화를 체감하였다. 상담은 이들의 심리적 안정과 영적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고, 두 이론의 통합적 적용 역시 단순한 심리적 치유를 넘어 대인관계 개선과 영적 회복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는 상담 과정에서 나타난 심리 변화와 영적 성장, 그리고 특수한 문화·사회적 맥락이 상담 효과에 미치는 영향까지 탐구한 결과, 다양한 문화권 상황과 이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독교 용서 상담이 이주민의 심리적 안녕, 사회적 적응, 대인관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조선족 이주민, 기독교 상담적 개입, 정체성 재정립, 문화적 적응, 대인관계 문제

* 베스트상담센터 상담사

I. 여는 글

세계화와 노동력 이동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에는 다양한 이주민 집단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 대표적 이주민으로서 조선족이 거론된다. 하지만 이들은 한국과 언어·문화적 유사성과 동시에 이중적 정체성, 사회적 차별, 가족해체 등 복합적인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김정훈, 박영희, 2021). 조선족이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대인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어릴 적 역기능적 의사소통(비난, 무시, 감정 억압 등)의 경험과 가족해체는 성인기의 대인관계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최인애, 201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릴 적 가족 내에서 감정이 자유롭게 표현되지 못하거나 비난, 무시, 감정 억압 등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경험한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과의 관계에서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하거나, 친밀한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더불어, 가족해체(부모의 별거, 이혼 등) 경험 역시 대인관계 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은 조선족 다문화가정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 조선족 집단에서도 관찰되며, 결국은 대인관계 문제로 승화된다(박지훈, 2022). 실제 조선족에게 발생하는 대인관계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심리적 어려움에 그치지 않고, 외부 사회와의 갈등이나 오해를 심화시키고,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적절한 해결 방법이 필요하다(김정훈, 박영희, 2021).

조선족 이주민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 사회적 낙인, 가족해체 등 다양한 환경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는 내면의 갈등과 정체성 혼란, 심리적 상처로 이어질 수 있는데, 개인상담은 이러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리고 개인상담은 내담자가 자신의 복잡한 감정과 내면의 상처를 안전하게 언어화하고 깊이 탐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박지훈, 2022). 그 외에도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내담자 개인의 특수한 심리적 문제와 감정 상태를 세밀하게 다룰 수 있으며, 이는 집단상담이 제공하기 어려운 맞춤형 심리적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주은선, 김정훈, 박영희, 2010). 특히 조선족 이주민처럼 언어적·이주 배경 집단의 경우, 자기 경험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필요하다. 개인상담을 통해 내담자는 정서적 문제와 대인관계 갈등을 개별적으로 다루며,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부정적 관계 패턴을 인식하고 새로운 대인관계 전략을 개발할 수 있다(박성주, 2021). 또한, 개인상담은 신상 보호와 심리검사 해석, 집단에서 다루기 어려운 민감한 문제를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환

경을 제공한다(도니와 블로그, 2018). 상담자는 내담자의 문화적 배경과 특수성을 존중하며,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와 공감, 맞춤형 접근을 통해 내담자에게 심리적 안정과 신뢰를 제공하므로 다문화 이주민의 다양한 문제와 심리적 어려움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상담을 통해 내담자가 자신의 문화와 가치관을 존중받는 경험을 통하여 심리적 안정과 관계 회복을 경험하도록 도울 수 있다(김혜련, 김현주, 2015).

재한 조선족의 대인관계 문제 해결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적응 과정을 중심으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해 왔다. 여러 논문에서는 조선족 이주민들이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 그리고 사회적 낙인이나 차별 등으로 인해 대인관계 형성과 사회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한다(김정훈, 박영희, 2021; 최인애, 2013).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노력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을 띤다.

예를 들어, 재한 조선족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 사회적 편견이 대학 생활 적응과 대인관계 형성에 큰 걸림돌이 된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심리상담과 정서적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김정훈, 박영희, 2021). 또한 직장 내 조선족 여성도 언어와 문화적 차이, 그리고 차별로 인해 다양한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들은 순응형, 도구형, 도피형 등 각기 다른 적응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인애, 2013). 이러한 연구들은 심리적·사회적 지원이 대인관계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안한다.

또 가족이나 직장, 지역사회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대인관계 문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동포 커뮤니티나 사회적 네트워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지고 있다(박우, 2011). 특히 조선족 상담자들의 전문직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체성 혼란과 대인관계 갈등을 상담 및 심리적 지원을 통해 극복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김은정, 김현수, 2022). 그리고 예술치료나 문학치료 프로그램이 심리적 안정과 대인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전은주, 2024).

이처럼 기존 연구들은 심리상담, 집단상담, 문화적응 교육, 예술치료 등 다양한 방법이 조선족 이주민의 대인관계 문제 해결에 실제로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심리적 또는 예술적 접근만으로는 조선족 이주민이 겪는 깊은 내면의 상처, 사회적 고립, 정체성 혼란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충분히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영적, 정서적, 관계적 치유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용서치료는 이제 가지 치유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된다(Enright &

Fitzgibbons, 2015).

결국 조선족 이주민의 대인관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용서치료와 같은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는 개인의 심리적·정서적 회복뿐만 아니라 사회적 통합과 건강한 공존을 위해서도 필요하다(Fawcett, 2010). 용서는 단순히 타인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상처받은 자기 자신을 위한 과정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용서를 통해 조선족 이주민은 부정적 감정에서 벗어나 심리적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조선족 이주민의 대인관계 문제는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 갈등, 오해, 공동체 내 분열로 확산할 수 있으므로, 용서를 통한 내적 치유와 관계 회복은 사회 전체의 통합과 건강한 공존을 위해서도 필요하다(주은선, 김정훈, 박영희, 2010). 용서 상담은 조선족 이주민이 자신의 문화와 가치관을 존중받으며 심리적 안정과 관계 회복을 경험하도록 돕는다. 이는 다문화 사회의 건강한 정착과 상호 이해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결국 용서 문제의 해결은 조선족 이주민 개인의 심리적·정서적 회복뿐 아니라 건강한 대인관계 형성, 사회적 통합, 다문화 사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필요하고 정당한 일이다(주은선, 김정훈, 박영희, 2010).

이때 용서 상담, 특히 안경승의 5단계 용서 이론과 팀 켈러의 3차원 용서 이론을 통합적으로 적용하는 기독교 용서 상담은 조선족 이주민의 대인관계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 안경승 이론은 가치화, 존중화, 보상무효화, 신뢰화, 화해화의 단계별 접근을 통해 내담자가 감정을 언어화하고, 상대를 존중하며, 복수심을 내려놓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안내한다. 이 과정은 가족해체 등 관계적 상처를 경험한 내담자가 신뢰를 회복하고 실제 화해로 나아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안경승, 2006). 그리고 팀 켈러의 3차원 용서 이론은 수직적(하나님과의 용서), 내면적(자기용서), 수평적(타인과의 화해) 차원을 아우르며, 정체성 혼란과 사회적 낙인을 신앙적으로 재해석하고 공동체의 지지를 통해 소외감을 극복하도록 돕는다(Keller, 2022). 두 이론의 통합은 감정 언어화, 신앙적 재해석, 자기 이해, 관계 회복을 동시에 촉진하며, 가족과 교회 공동체 모두에서의 화해와 지지망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이로써 내담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건강한 대인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주은선, 김정훈, 박영희, 2010).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조선족 이주민이 경험하는 대인관계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교회 상담실에서 실시된 세 명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므로 기독교 용서 상담(안경승과 팀 켈러 이론 통합 적용)이 내담자의 감정 치유, 자기수용, 관계 회복에 미치는 효과와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교회 상담 및 다문화 이주민 사

역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상담 모델과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론은 질적 사례연구를 기반으로 한다. 교회 상담실에서 10 회기(각 60분)씩 진행된 세 명의 조선족 이주민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상담 과정을 분석하였다. 자료 수집은 심층 면담, 감정 일기, 자기성찰 기록, 상담자 관찰 메모 등 다양한 질적 자료를 활용하여 참여자의 경험을 다각도로 포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주제 분석과 교차사례분석을 통해 공통된 주제와 각 사례의 특수성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조선족 이주민의 상담 경험과 변화 과정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질적 사례연구를 적용하여, 교회 상담실에서 10 회기(각 60분)씩 진행된 세 명의 조선족 이주민 사례를 심층 분석한다. 자료 수집은 심층 면담, 감정 일기, 자기성찰 기록, 상담자 관찰 메모 등 다양한 질적 자료를 활용하며, 자료 분석은 주제 분석과 교차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주요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조선족 이주민: 본 연구에서 '조선족 이주민'이란,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중국 출생 배경을 가진 중국 국적 또는 한국 국적의 한민족을 의미한다. 이들은 중국 내 소수민족인 조선족으로서, 중국에서 성장하거나 생활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 이주해 정착한 집단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조선족 이주민을 중국 출생 배경과 한국 내 이주 경험을 동시에 지닌 한민족으로 한정하여 연구의 주요 대상으로 삼는다.

대인관계 문제: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 문제'란 참여자가 겪는 심리적·관계적 어려움의 복합적인 양상을 의미한다. 이는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해 정서 표현에 혼란을 겪거나, 갈등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러한 반복적인 회피와 감정 억압은 결국 타인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대인관계 문제는 감정 표현의 어려움, 갈등 회피, 그리고 관계의 단절이라는 연속적인 과정을 포괄한다.

기독교 용서: 본 논문이 다루는 기독교 용서는 내담자 개인의 내면적 변화와 치유에 중점을 둔다. 이 용서의 개념은 쌍방향 화해나 가해자의 회개, 잘못의 인정, 사과와 같은 상호적 요소를 필수 조건으로 삼지 않고, 내담자 스스로의 내적 결단과 변화를 강조한다. 즉, 내담자가 자신의 상처와 감정을 직면하고,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으며, 심리적·영적 자유와 자기수용, 성장을 이루는 일방적이고 내면적인 과정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접근은 내담자가 과거의 상처와 감정에서 벗어나 심리적 해방을 경험하고, 자기수용과 자기 치유를 통해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내적 힘

을 갖추게 하므로 대인관계 문제 해결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부모의 사망, 이혼,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관계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기독교 용서 상담: 본 연구에서 '기독교 용서 상담'이란, 교회 상담실에서 실시되는 전문적 상담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이 프로그램은 안경승의 5단계 용서 이론(가치화, 존중화, 보상무효화, 신뢰화, 화해화)과 팀 켈러의 수직적·내면적·수평적 용서 개념을 통합적으로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감정 일기, 용서 선언문, 편지쓰기, 기도문, 증보기도 등 다양한 기독교 상담 기법을 활용하며, 총 10회기(각 60분)로 구성되어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과 상처를 안전하게 표현하고, 용서와 치유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상담은 신앙적 자원을 바탕으로 심리적·정서적 회복과 관계 개선을 동시에 추구한다.

상담 효과: 본 연구에서 '상담 효과'란 상담을 받기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참여자의 감정 언어화가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는 상담 대화에서 감정 표현의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자기수용의 증대로 긍정적인 자기 진술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다. 아울러 분노, 원망, 불신 등 부정적 감정이 감소하고, 가족 및 타인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변화 역시 상담 효과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내담자가 심리적으로 더 안정되고, 대인관계에서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게 됨을 보여준다.

위의 내용을 종합 정리해 보면 조선족 이주민은 한국 사회에서 언어와 문화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이중적 정체성, 사회적 차별, 가족해체 등 복합적인 심리·사회적 어려움과 대인관계 문제를 겪고 있다. 특히 어린 시절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가족해체 경험은 성인기의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내면의 갈등, 정체성 혼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진다. 기존 연구들은 심리상담, 집단상담, 문화적응 교육, 예술치료, 사회적 네트워크 활용 등 다양한 접근을 시도해 왔으나, 용서 상담을 통한 대인관계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연구는 이루어진 바 없다.

본 연구는 조선족 이주민이 겪는 대인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독교 용서 상담의 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안경승의 5단계 용서 이론과 팀 켈러의 3차원 용서 이론을 통합적으로 적용하여, 내담자의 감정 치유와 관계 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탐색한다. 이를 통해 교회 상담실 및 다문화 이주민 사역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상담 모델과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조선족 이주민의 심리적·사회적 적응을 지원하고, 다문화

사회에서의 건강한 공존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 상담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II. 펴는 글

1. 이론적 배경

1) 조선족 이주민의 대인관계 문제

조선족은 19세기 말부터 중국 동북 지역(길림성, 헤이룽장성 등)으로 이주한 한민족의 후손으로, 중국 내 대표적 소수민족이다. 현대적 의미의 '재한 조선족' 이주는 1980년대 후반 중국의 개혁·개방과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본격화되었는데 (EncyKorea, 2025), 초기에는 친척 방문, 약장사 등으로 시작해, 이후 경제적 기회와 가족 재결합, 유학 등 다양한 이유로 한국에 정착하는 인구가 급증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코리아 드림'을 품고 역이주한 조선족은 2020년대 기준 약 70만 명에 이르며, 이들은 초창기 3D 업종 종사와 차별, 인권 운동, 국적 회복 및 재외동포법 개정 운동 등을 거쳐 오늘날에는 상업, 무역, 여행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5). 조선족은 현재 한·중 경제교류와 다문화 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그 숫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박상수, 2017). 이들은 경제적 기회, 가족 재결합, 더 나은 삶을 위해 한국으로 이주하지만, 이주 과정에서 언어, 문화, 사회적 차별, 가족 내 갈등 등 복합적인 심리적 어려움에 직면한다(송지영, 2008).

조선족 이주민은 민족적으로 한민족임을 자부하지만, 실제 한국 사회에서는 '외국인'이나 '이방인'으로 취급받으며 정체성 혼란, 소외감, 낮은 자존감, 분노, 소속감 결여 등 다양한 심리적 상처를 경험한다. 반복되는 차별과 소외는 이들의 심리적 상처를 더욱 심화시키고, 중국과 한국 두 문화 사이에서의 정체성 혼란과 한국 이주 후 언어·문화·사회적 차별 등은 추가적인 어려움으로 작용한다(Kim, 2012). 이주민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언어 장벽,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소외, 가족 구조 변화 등 다양한 심리·사회적 도전에 직면하며 한국 사회 내 차별과 배제, 가족 내 갈등, 정체성 혼란이 심리적 적응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조영달, 김은정, 2010). 동시에 이들은 '중국인'이라는 낙인과 '동포'로서의 기대 사이에서 복합적인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으며, 한민족이라는 소속감과 외국인이라는 사회적 낙인 사이에서 정체성 혼란과 소외감을 경험한다(박우,

2011). 이러한 상황은 대인관계 불안, 신뢰 결여, 방어적 태도, 소속감 결핍 등으로 나타나며, 가족해체와 부모화 경험은 정서 표현의 양가성, 자기방어적 태도, 관계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김정훈, 박영희, 2021).

이와 같은 어려움은 결국 대인관계 문제로 드러나고, 개인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내 유대감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심리적 개입을 넘어, 신앙적 정체성 회복과 감정 치유, 관계 회복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기독교 용서상담은 조선족 이주민이 겪는 정체성 혼란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으로 재정립하도록 돕고, 반복되는 차별과 상처로 인한 부정적 감정을 단계적으로 해소하며, 가족과 공동체 내에서의 관계 회복을 촉진한다. 실제로 기독교 용서상담은 감정의 언어화, 자기수용, 신앙적 성장, 관계 재정립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여, 조선족 이주민의 대인관계 문제 해결과 심리적·공동체적 치유에 효과적인 통합적 대안이 될 수 있다.

2) 기독교 용서 상담 이론

기독교 용서 상담은 조선족 이주민의 대인관계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접근법으로 주목받고 있다(안경승, 2006; Keller, 2022). 기독교 용서 상담은 내담자가 겪는 차별과 소외, 가족 내 상처, 정체성 혼란에서 비롯된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게 하여 사회적 낙인과 내부의 갈등을 초월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내담자는 자기수용과 용서의 단계를 거치며 심리적 회복과 건강한 대인관계 형성을 경험하게 된다. 상담적 개입은 내담자의 감정 언어화, 자기수용, 분노와 불신 등 부정적 감정의 감소를 끌어내며, 가족과 타인과의 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온다. 실제로 상담 환경에서는 다문화적 민감성과 신뢰 구축, 비밀보장, 공감적 경청이 강조되며, 용서 상담은 내담자가 자신과 타인을 받아들이고 사회적 소속감과 심리적 안정을 회복하는 데 효과적임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Enright & Fitzgibbons, 2015; 연합뉴스, 2019). 이러한 맥락에서 기독교 용서 상담은 조선족 이주민이 반복되는 차별과 상처로 인한 대인관계 문제를 극복하고, 정체성 재정립과 감정 치유, 관계 회복을 동시에 이루는 데 실질적이고 통합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기독교 상담은 인간의 전인적(영적·심리적·사회적) 회복을 추구하며, 성경의 진리와 상담 이론을 통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화해의 복음을 바탕으로, 내담자가 자신과 타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는다(Collins, 2008). 특히 용서는 자신

에게 상처를 준 타인이나 과거의 상황을 이해하고, 감정을 해소하며, 자기 자신을 치유하는 심리적 과정이다(Enright & Fitzgibbons, 2015). 또한 용서는 단순히 상대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리적 자유와 성장, 자기효능감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Worthington, 2005). 상담에서 용서는 내담자가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자기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며, 건강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Enright, 2011). 용서를 통해 내담자는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Enright & Fitzgibbons, 2015). 특히 기독교 상담에서 용서는 단순한 감정 해소나 도덕적 미덕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근거한 신앙적 실천이자, 인간관계의 근본적 변화와 치유를 이끄는 영적 자원이다(Keller, 2022; 안경승, 2006). 이러한 의미에서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 수 있다. 용서는 “빚을 탕감하다”(canceling a debt)는 원어적 의미가 있는데 성경은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마 18:22)고 명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용서가 모든 신자의 삶의 근본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신학적 토대 위에 기독교 상담은 용서를 상담의 핵심적 목표로 삼는다(Enright & Fitzgibbons, 2015).

그중에서 안경승의 5단계 용서이론은 용서 과정을 구조적으로 제시하여 내담자가 상처를 극복하고 심리적·관계적 회복에 이르도록 돕는 기독교 상담 모델이다. 이 이론의 첫 번째 단계인 가치화는 내담자가 자신의 상처 경험을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인생의 의미와 가치로 재해석하도록 이끈다. 이는 심리학의 ‘의미 재구성’ 개념과 연관되며, 고통 속에서도 성장과 변화를 추구하는 인간의 회복 탄력성 이론에 기반을 둔다. 기독교 상담에서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고통의 의미를 찾도록 안내한다(안경승, 2006).

두 번째 단계인 존중화는 자신과 타인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기르는 과정이다. 인본주의 상담의 자기수용과 타인 수용 개념과 연결되며, 가해자 역시 불완전한 인간임을 인정하고 인간의 한계와 약점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강조한다. 세 번째 단계인 보상무효화는 가해자의 사과나 보상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상대의 변화와 무관하게 용서를 선택함으로써 내면의 자유를 얻는 단계이다. 이 과정은 용서의 ‘무조건성’을 강조하며, 기독교적 사랑과 은혜의 신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안경승, 2006).

네 번째 단계인 신뢰화는 상처 이후에도 다시 신뢰를 쌓으려는 태도를 기르는 과정이다. 완전한 신뢰 회복이 아니라, 상처를 딛고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실천적 접근이 중요하게 다뤄진다. 마지막 화해화 단계에서는 가해자와의 실제적 화해와

새로운 관계 맺음을 시도하며, 용서가 단순한 감정 해소를 넘어 실질적 관계 회복으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화해는 상대의 변화와 무관하게 내담자의 내면에서 먼저 시작된다는 점이 특징이다(안경승, 2006).

이 이론은 심리학적 근거(의미 재구성, 자기수용, 회복 탄력성,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등)와 기독교 신학적 근거(인간의 죄와 한계, 하나님의 무조건적 용서와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용서 등)를 통합하고 있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는 감정 일기, 용서 선언문, 편지쓰기, 역할극 등 구체적인 상담 기법과 연계되어 내담자의 감정 언어화, 자기수용, 분노 해소, 관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 국내외 다양한 상담 사례와 연구에서도 이 5단계 이론이 자기수용, 분노 해소, 가족 및 대인관계 회복 등 긍정적 변화를 끌어내는 데 효과적임으로 보고되고 있다(안경승, 2006).

그리고 팀 켈러의 3차원 용서 이론은 용서를 세 가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설명한다. 첫째는 수직적 차원으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무조건적이고 완전한 용서를 받았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 신앙적 경험은 인간이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근본적인 동기와 토대가 된다. 성경의 마태복음 18장과 에베소서 4장 32절 등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인간의 용서 실천의 근거임을 강조한다(Keller, 2022).

두 번째는 내면적 차원이다. 이 단계에서는 복수심, 원망,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내려놓고 자기 내면에서 가해자를 용서하는 과정을 거친다. 켈러는 진정한 용서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빛을 스스로 감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감정 해소와 자기 치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 과정은 감정 일기 작성, 자기성찰, 기도 등 심리적·신앙적 실천과 연결된다(Keller, 2022; Worthington, 2005).

세 번째는 수평적 차원이다. 이 단계에서는 실제로 가해자와 화해를 시도하고 관계 회복을 추구한다. 켈러는 수직적·내면적 용서가 선행될 때, 타인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화해와 포용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이 단계는 공동체 내 신뢰 회복, 사회적 정의, 회복적 정의 등 관계적 실천을 포함한다(Keller, 2022; Enright & Fitzgibbons, 2015). 이러한 3차원 용서 이론은 내담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해 자기 내면의 치유와 타인과의 화해까지 아우르는 총체적 변화를 경험하도록 돕는다.

기독교적 용서 상담에서 안경승과 팀 켈러의 이론은 모두 내담자의 심리적 치유와 영적 성장을 목표로 한다. 특히 다문화적·정서적 특성이 두드러지는 조선족 이주민 집단에 실질적인 상담 대안을 제공한다. 하지만 두 이론은 접근 방식과 강조점에서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표 1〉 안경승 5단계 용서 이론과 팀 켈러 3차원 용서 이론 비교 도표

구분	안경승 5단계 용서 이론	팀 켈러 3차원 용서 이론
이론 구조	5단계(가치화, 존중화, 보상무효화, 신뢰화, 화해화)	3차원(수직적, 내면적, 수평적 용서)
핵심 개념	용서의 심리적·관계적 변화 과정을 단계별로 구체화	용서를 하나님-자신-타인과의 관계에서 통합적으로 접근
주요 초점	감정의 언어화, 상처 인정, 상대 존중, 복수심 포기, 신뢰·화해	하나님과의 관계(수직), 자기 내면(내면), 타인과의 화해(수평)
실천 방법	감정 일기, 용서 선언문, 편지쓰기, 단계별 상담 개입	신앙적 고백, 기도, 자기성찰, 공동체적 실천
심리적 접근	내담자의 감정 표출 및 관계 회복에 단계적으로 집중	내면의 복수심 해소, 자기 용서, 타인과의 화해 강조
신학적 접근	단계별 실천을 통해 인간관계 내 용서 실현에 중점	하나님의 용서 경험, 신앙적 정체성 회복에 중점
적용 대상	가족·지인 등 구체적 관계에서의 상처와 갈등	하나님-자신-타인 모두를 아우르는 관계적 치유
특징	구조적·실천적, 단계별 상담 진행, 관계 회복에 초점	통합적·신학적, 신앙과 삶의 전 영역에서 용서 강조

안경승의 5단계 용서 이론과 팀 켈러의 3차원 용서 이론은 기독교 상담에서 내담자의 심리적 치유와 영적 성장을 동시에 지원하는 상호보완적 모델이다. 안경승 이론은 감정의 언어화, 자기 이해, 단계별 실천을 통해 분노 해소와 관계 회복, 화해에 이르는 구체적인 과정을 제시한다. 팀 켈러 이론은 용서를 수직적(하나님과의 관계), 내면적(자기 자신과의 관계), 수평적(타인과의 관계)이라는 세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바라보며, 신앙적 정체성 회복과 자기 치유, 공동체 내 화해를 강조한다.

이 두 이론을 통합하면 조선족 이주민처럼 가족해체, 세대 갈등, 소속감 결여 등 복합적 문제를 겪는 집단에 맞춤형 상담 전략을 제공할 수 있다. 통합적 접근은 감정 해소, 자기수용, 신앙적 의미 부여, 관계망 재구축 등 다차원적 치유를 동시에 가능하게 하며, 실제 상담 현장에서 내담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건강한 대인관계를 회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안경승, 2006; Keller, 2022).

2.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qualitative case study) 설계를 적용하였다. 질적 연구 설계는 연구 목적, 연구 문제, 개념 틀, 연구 방법, 타당성 등 다양한 요소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설계는 연구 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맥락적 해석을 중시하며, 각 요소가 고정된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반복적으로 조정되고 순환적으로 발전한다. 즉, 질적 연구는 선형적 단계가 아니라 비선형적이고 순환적인 과정을 통해 연구의 타당성과 심층성을 확보한다(Creswell & Creswell, 2018).

2) 연구 대상

연구 참여자는 가족 및 대인관계 문제를 경험한 조선족 이주민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은 2024년 3월부터 5월까지 총 10회기, 각 60분씩 진행된 상담을 받은 사람 중에서 소논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이들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최종적으로 선정된 연구 대상자는 총 3명으로 구성되었다.

〈표 2〉 연구 참여자 소개

구분	성별, 나이, 직업	용서 대상, 상처 유형	학력, 결혼 여부	출생 국가 거주 국가
참여자1	여, 52, 직장인	전남편, 외도	대학 졸, 이혼	중국, 한국
참여자2	여, 52, 가정주부	어머니, 비난	대학원 졸, 기혼	중국, 한국
참여자3	남, 55, 자영업	어머니, 폭력	대학원 졸, 기혼	중국, 한국

3) 자료 수집과 분석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다양한 질적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우선 상담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전사함으로써 참여자의 경험과 감정을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감정 일기와 용서 선언문을 통해 내담자의 내면 변화와 용서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였다. 이와 함께 상담자가 직접 작성한 관찰 메모를 활용하여 상담 현장

의 분위기와 내담자의 반응을 보조적으로 파악하였다.

자료 분석 과정에서는 질적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반복적으로 자료를 읽으며 심층적으로 내용을 파악하였다. 분석 절차는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을 중심으로 하여, 각 사례에서 도출된 주요 주제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해석하였다. 또한 교차사례분석과 참여자 피드백 분석을 병행하여, 자료 해석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Braun & Clarke, 2006). 이러한 다각적인 분석 절차를 통해 연구 결과의 타당성과 심층성을 높였다.

이러한 연구 설계는 참여자가 실제로 경험한 상황과 그에 따른 변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연구자는 참여자의 삶의 맥락과 내면적 변화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으며, 상담이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특히 질적 접근은 상담 효과의 본질을 표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심층적인 심리·정서적 변화까지 탐구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설계는 상담 현장에서 나타나는 복합적인 경험과 의미를 풍부하게 해석하는 데 적합하다.

3. 사례 분석

1) 사례 1: 참여자1 - 전남편의 외도, 성중독, 무정자증, 이혼

(1) 상담 배경 요약

참여자는 중국 흑룡강성에서 태어난 52세 조선족 여성으로서 40대 초반에 전남편과 함께 더 나은 삶을 꿈꾸며 한국으로 이주했다. 결혼 초기에 전남편이 무정자증 진단을 받으면서 부부는 자녀를 가질 수 없게 되었고, 전남편은 불임 사실을 알게 된 후 남자로서의 자신감을 완전히 잃고, 사회적으로도 큰 수치심을 느꼈으며, 반복적으로 외도와 성중독에 가까운 행동을 보였다. 참여자는 전남편이 남자로서 능력'을 증명하고 싶어서 다른 여성들과 관계를 맺었으며, 무정자증으로 인한 열등감과 결혼 생활의 실패를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참여자는 자녀를 갖지 못한 상실감, 전남편의 배신에 대한 분노, '실패한 아내'라는 생각에서 오는 수치심, 자존감의 저하, 이혼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조선족 공동체와 한국 사회 모두에서 받는 사회적 낙인까지 겹쳐 복합적인 심리적 고통을 겪었다. 한국에 와서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 이주민에 대한 편견, 가족해체로 인한 외로움과 지지망의 부재로 대인관계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참여자는 전남편의 외도와 성중독은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 결함이 아니라, 부부가 겪은 심리적 상

처와 사회적 압박이 겹친 결과라고 생각했다.

참여자는 가족 내 갈등, 정체성의 혼란, 그리고 사회적 소외 등 다양한 문제가 한꺼번에 몰려와 매우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다. 그는 상담받게 된다면, 전남편을 단순히 가해자로만 바라보지 않고 심리적으로 취약한 한 인간으로 다시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을 밝혔다. 또한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회적 관계도 새롭게 세워가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이러한 소망은 내면의 치유와 더불어 관계 회복을 함께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2) 상담의 주요 목표 및 내용

이 상담은 참여자가 대인관계에서 받은 상처와 감정을 신앙 안에서 진솔하게 직면하고, 용서와 자기회복의 과정을 통해 건강한 정체성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아래 표는 각 회기별로 설정된 주요 목표와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표 3〉 회기별 주요 목표 및 내용

회기	주요 목표 및 내용
1	참여자와 관계 형성, 참여자의 현재 심리 상태 및 고민 파악, 신뢰 구축
2	전남편의 외도·무정자증에 대한 감정 언어화, 상실감·분노 직면, 감정 일기 작성하기
3	자기 비난과 죄책감 탐색, 용서 개념 소개 (수직적 차원의 용서)
4	전남편의 남성성 상실감에 대한 공감, 분노 해소 기법 연습 (가치화, 존중화)
5	용서 일기, 기도문 작성, 복수 욕구 포기 연습 (보상무효화)
6	이혼 결정 과정에서 자기효능감 회복, 자기돌봄 실천 (내면적 차원의 용서)
7	전남편에 대한 용서 선언문 작성, 중보기도 실습(신뢰화, 화해화, 수평적 차원의 용서)
8	새로운 정체성 구축, 교회 소그룹 참여 등 사회적 관계 확장
9	미래 계획 세우기, 자기 확인 및 자기효능감 강화
10	상담 종결, 변화 평가, 장기적 자기관리 및 신앙적 소망 확인

(3) 상담 과정 요약

상담 초기: 수직적 차원의 용서를 중심으로 참여자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도록 돕는 데 집중하였다. 전남편의 외도와 무정자증, 이혼으로 인한 상실

감, 분노, 자기 비난을 호소하는 참여자에게 상담자는 신뢰 관계 형성을 우선으로 시도하며, 공감적 경청을 통해 안전한 상담 환경을 조성하였다. 수직적 용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수평적 교환이 아닌, 절대적 존재로부터 받는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용서를 의미하며, 참여자가 자신을 '실패한 아내'로 정죄하고 자책하는 감정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은 당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사랑받는 존재로 보신다"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달하였다. 감정 일기 작성과 감정 표현 연습을 통해 상실, 분노, 수치심, 자기 비난 등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언어화하도록 도왔고, 기도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에 관한 구절을 함께 읽으며 심리적 부담을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지속하였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결혼 실패나 전남편의 외도로 규정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딸"임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수직적 용서의 경험을 통해 자기 비난과 수치심에서 점차 벗어나 자존감과 정서적 안정감을 회복하였다.

상담 중기: 가치화, 존중화, 보상무효화와 내면적 차원의 용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였다. 가치화 과정에서는 전남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로 바라보고, 그의 행동과 인간적 가치를 분리해 객관적으로 인식하도록 도왔으며, 참여자 자기 경험과 고통 역시 가치 있는 것으로 재해석하도록 지원하였다. 존중화 단계에서는 두의자기법과 중보기도를 통해 전남편의 내면적 고통과 연약함을 공감하며, 원망 대신 동정심과 이해를 확장하도록 했고, 참여자 자신도 있는 그대로 존중받을 존재임을 인식하게 하였다. 보상무효화 단계에서는 용서 선언문을 작성하게 하여 "전남편이 받아야 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자유를 선택한다"라는 태도를 내면화하도록 했으며, 복수심이나 보복 욕구를 봉사활동 등 긍정적 행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내면적 차원의 용서를 통해 참여자는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분노와 원망을 해소하고, 전남편과 자신 모두를 해방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신앙적 정체성에 대한 묵상과 "하나님의 딸로서의 가치"를 반복적으로 상기시키며, 자녀 없음이나 이혼이 참여자의 본질적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용서가 참여자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면서 전남편 용서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상담 종결: 신뢰화, 화해화, 수평적 차원의 용서를 적용하여 관계 회복을 도모하였다. 신뢰화 과정에서 참여자는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전남편과의 건강한 경계 설정을 통해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필요한 사안에 한해 명확하게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기르게 되었다. 화해화는 관계의 회복과 조화를 의미하며, 참여자는 교회 소그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이주민 여성들과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새로 온 이주민을 돕는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 소속감과 자기효능감을 함께 키울 수 있었다. 수평적 차원의 용서는 인간관계에서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용서로, 참여자는 전남편과의 현실적인 관계에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관계와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힘을 갖추게 되었다. 신앙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나는 하나님의 딸로서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라는 자기수용을 내면화하였고, 조선족 이주민 지원과 다문화 상담 분야에서의 자기 발전을 꿈꾸며 미래에 대한 희망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주체적 선택권을 갖게 되어 상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4) 상담 효과 요약

상담을 통해 참여자는 전남편의 외도와 이혼, 무정자증 등으로 인해 자신을 '실패한 아내'로 정죄하고 자책하던 과거의 시각에서 점차 벗어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며 "나는 하나님의 딸로서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라는 신앙적 정체성을 내면화하게 되었다. 감정 일기와 용서 선언문 작성, 그리고 기도와 묵상을 통해 전남편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 그리고 상실감과 자기 비난을 구체적으로 언어화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참여자는 점차 감정적으로 자유로워지고 정서적 안정감과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었다.

상담 중기에는 내담자가 전남편의 행동과 인간적 가치를 분리해 바라보려 노력했다. 복수심과 원망을 긍정적인 행동과 봉사로 전환하면서 내면적 용서와 자기수용을 점차 이루었다. 또한 신앙적 정체성을 반복적으로 상기하고, 교회 공동체 내 소속감을 경험하며 외로움과 소외감을 극복해 나갔다. 이러한 과정은 내담자의 심리적 안정과 관계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상담 마무리에는 전남편과의 건강한 경계 설정을 통해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필요한 사안에만 명확하게 소통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고, 교회 소그룹 활동과 이주민 자원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사회적 소속감과 자기효능감 역시 크게 향상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은 참여자가 과거의 상처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관계와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힘을 갖추게 했으며, 다문화 상담 분야 등 미래에 대한 희망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자기 긍정과 신뢰, 화해의 경험을 쌓으며 외부 평가나 과거의 아픔에 흔들리지 않는 내적 안정감과 주체성을 갖추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5) 참여자 피드백 요약

참여자는 상담 과정을 통해 과거의 상처와 분노에서 벗어나 신앙적 정체성을 바탕

으로 한 자기 긍정과 정서적 자유를 경험했다고 피드백했다. 전남편의 외도와 이혼으로 인한 '실패한 아내'라는 자기정체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딸"로서의 가치를 깨달았으며, 감정 일기와 용서 선언문을 통해 복수심과 상실감을 해소하고 내적 안정감을 회복했다고 언급했다. 상담 중기에는 전남편의 행동을 객관화하며 복수심을 봉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기수용과 공동체 소속감을 얻었고, 마무리에는 전남편과의 건강한 관계 설정과 사회활동 참여를 통해 주체적인 삶을 설계하는 힘을 키웠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문화 상담 분야 진출 등 미래 목표를 세우며 외부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내적 주체성을 형성한 점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2) 사례 2: 참여자2 - 어머니의 반복적 비난과 비교, 자존감 저하

(1) 상담 배경 요약

참여자는 중국 길림성에서 태어난 52세 조선족 여성으로,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반복적인 비난과 비교 속에서 성장했다. “넌 왜 이것밖에 못 하나?”, “이웃집 누구는 공부도 잘하고 착한데 넌 왜 그러냐?”와 같은 말들이 일상적이었고,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거나 실수할 때마다 “남들은 다 잘하는데 너만 못하냐?”, “네가 우리 집 망신이다”라는 비난을 듣곤 했다. 이러한 환경에서 참여자는 점차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라는 열등감과 자기비난을 내면화하게 되었고, 자존감이 크게 저하되었다.

이러한 상처는 단순히 가족 내의 문제에 머무르지 않았다. 한국에 와서 조선족으로 살아가면서, 참여자는 중국과 한국이라는 이중문화적 환경에 깊이 노출되었다. 조선족으로서 중국의 주류 문화와 조선족 고유문화, 그리고 한국 사회의 문화 사이에 놓인 채 살아가며, 정체성 혼란과 소속감 결여를 반복적으로 경험했다. 한국 사회에서 조선족이라는 이유로 겪는 언어적·문화적 차이와 사회적 낙인은 참여자의 자아 정체성에 혼란을 더했고, 이러한 이중문화적 갈등이 내면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한국에 정착한 이후,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는 새로운 사회적 환경에서 더욱 복합적으로 재현되었다. 한국 사회의 기준과 기대, 그리고 조선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참여자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위축되고 불안을 느끼게 했다. 모임이나 행사에서 먼저 다가가거나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힘들었고, 주변에 친구나 지인이 적어 외로움이 깊어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중년 이후의 삶에 대한 자신감도 점차 줄어들었다.

결국 한국에서 조선족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이중문화적 정체성의 갈등, 문화적 소외

감, 언어적 장벽, 그리고 가족 내 상호작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참여자는 대인관계에서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하고 “나는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인가?”라는 비관적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와 용서의 문제는 중국과 한국이라는 이중문화적 배경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조선족 이주민의 특수성과 본 연구의 차별적 의의를 분명히 보여준다.

(2) 상담의 주요 목표 및 내용

이 상담은 어머니와의 상처를 신앙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자신을 표현하며 용서를 실천함으로써 자기효능감과 자아를 회복하고, 세대 간 관계까지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회복하는 치유와 성장의 여정이다. 아래 표는 각 회기별로 설정된 주요 목표와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표 4〉 회기별 주요 목표 및 내용

회기	주요 목표 및 내용
1	참여자와 신뢰 관계 형성, 어린 시절 상처와 현재 고민 파악
2	어머니의 비교·비난에 대한 감정 언어화, 열등감 직면
3	자기표현의 두려움 탐색, 감정일기 작성 시작, 하나님의 용서이해(수직적 차원의 용서)
4	어머니의 한계와 상황 이해(존중화), 자기효능감 회복 시도 (가치화, 존중화)
5	어머니에게 편지 쓰기, 용서의 의미 탐색 (내면적 차원의 용서)
6	자기 확인, 소그룹에서 자기 의견 말하기 등 실천 과제
7	용서 선언문 작성, 분노와 슬픔의 해소 연습 (보상무효화)
8	어머니와의 소극적 관계 유지, 명절 인사 등 (수평적 차원의 용서, 신뢰화, 화해화)
9	자녀 교육 방식 성찰, 세대 간 악순환 단절 노력
10	상담 종결, 자기수용 및 미래에 대한 소망 확인

(3) 상담 과정 요약

상담 초기: 수직적 차원의 용서를 통해 참여자가 자신의 상처와 고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이루어졌다. 수직적 차원의 용서는 위에서 오는 은혜, 즉 절대적 존재로부터 받는 무조건적 용서를 의미하며, 참여자는 어머니의 반복적인 비교와 비난으로 인한 자신의 상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감정 일기 작성과 자기 확언을 통해 내면의 감정을 언어화하고, 자기표현의 두려움을 탐색하며 상처받은 자신을 용납하고 수용하는 기초 작업이 이루어졌다. 수직적 용서를 통해 참여자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재확인하고, 상처로 인한 분노와 자기 비난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상담 중기: 안경승의 가치화, 존중화, 보상무효화와 팀 켈러의 내면적 차원의 용서가 적용되었다. 가치화 과정에서 참여자는 자기 경험과 감정을 가치 있는 것으로 재해석하며, 어머니의 한계와 상처를 이해하는 과정을 거쳤다. 존중화를 통해 참여자는 자신과 타인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며, 자기수용과 자존감을 회복했다. 보상무효화로서 어머니로부터 받기를 기대했던 인정이나 사랑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고, 그 영향력을 차단하며, 어머니의 연약함을 이해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팀 켈러의 내면적 차원의 용서는 참여자가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고 용서 선언문을 작성하면서,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분노와 원망을 해소하고 자신을 해방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는 자기 긍정적 사고를 기르고, 삶의 의미와 목표를 재정립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아갔다.

상담 종결: 수평적 차원의 용서, 신뢰화, 화해화가 이루어졌다. 수평적 차원의 용서는 인간관계에서의 실질적인 용서로, 참여자가 어머니와의 소극적 관계 유지(명절 인사 등)를 실천하면서 현실적인 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것이었다. 신뢰화 과정에서는 참여자가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자녀와의 교류 방식을 점검하며 긍정적 양육 태도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려는 의지를 강화했다. 화해화는 관계의 회복과 화해를 의미하며, 참여자는 자신과 가족,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호 신뢰와 존중의 관계를 확립해 나갔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는 상담 과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자기효능감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확인하고,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힘을 갖추었음을 확인하며 상담을 마무리했다.

(4) 상담 효과 요약

상담 초기에는 참여자가 절대적 존재로부터 받는 무조건적인 용서, 즉 수직적 차원의 용서를 경험하면서 어머니의 반복적인 비교와 비난으로 인한 상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감정 일기와 자기 확언을 통해 내면의 감정을 언어화하고 자기표현의 두려움을 탐색하며, 상처받은 자신을 용납하고 수용하는 기초 작업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참여자는 존재 가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회복하고 분노와 자기비난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상담 중기에는 안경승의 가치화, 존중화, 보상무효화와 팀 켈러의 내면적 차원의 용

서가 적용되었다. 참여자는 자기 경험과 감정을 가치 있는 것으로 재해석하고, 어머니의 한계와 상처를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과 타인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게 되었으며, 자기수용과 자존감을 회복했다. 또한 어머니로부터 받으려 했던 인정이나 사랑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그 영향력을 차단하고 어머니의 잘못된 책임을 묻지 않는 보상무효화를 실천했으며, 어머니에게 편지 쓰기와 용서 선언문 작성 등 내면적 용서의 과정을 통해 내재된 분노와 원망을 해소하고 자기해방의 경험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는 삶의 의미와 목표를 재정립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아가고 있다.

상담 마무리에는 수평적 차원의 용서, 신뢰화, 화해화가 이루어졌다. 참여자는 어머니와의 소극적 관계 유지(명절 인사 등)를 실천하면서 현실적인 관계 회복을 시도했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며 가족 및 주변인과의 상호 존중 관계를 확립해 나갔다. 자녀와의 교류 방식을 점검하며 긍정적 양육 태도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려는 의지를 강화하였고, 상담 과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자기효능감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참여자는 과거 상처에 머무르지 않고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갖추었으며, 관계 회복과 자기 성장, 영적·정신적 안정감을 경험하며 상담을 마무리하였다.

(5) 참여자 피드백 요약

참여자는 상담을 통해 어머니의 반복적인 비교와 비난에서 비롯된 상처와 자기 비난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임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감정 일기와 자기 확인, 자기표현 훈련을 반복하면서 내면의 감정을 언어화하고 상처받은 자신을 점차 수용하게 되었고, 분노와 자기 비난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다고 느꼈다. 상담 중기에는 자기 경험과 감정을 가치 있게 재해석하고, 어머니의 한계와 상처를 이해하면서 자기수용과 자존감을 회복했다고 밝혔다. 어머니에게 받으려 했던 인정이나 사랑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편지 쓰기와 용서 선언문 작성 등 내면적 용서 과정을 통해 내재된 분노와 원망을 해소하며 자기해방을 경험했다고 평가했다. 상담 마무리에는 어머니와의 소극적 관계 유지, 가족 및 주변인과의 신뢰와 존중 회복, 자녀와의 긍정적 양육 실천 등 관계 변화가 실제로 나타났다고 느꼈으며, 상담 전 과정을 돌아보며 자기효능감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커졌다고 피드백했다. 과거 상처에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관계 회복, 내적 안정감을 얻게 된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정리했다.

3) 사례 3: 참여자3 - 어머니의 언어폭력과 신체 폭력, 만성 분노

(1) 상담 배경 요약

참여자는 중국 길림성에서 태어난 55세 조선족 남성이다.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반복적인 언어적·신체적 폭력을 경험하며 자랐다. “넌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넌 쓸모없는 놈이야”와 같은 말과 잦은 체벌은 참여자에게 깊은 상처와 만성적 분노, 죄책감을 남겼다. 아버지는 가족을 부양하느라 집에 거의 없었고, 어머니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많았던 참여자는 늘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성장했다.

이러한 상처는 한국에 와서 조선족으로 살아가면서 더욱 복합적으로 심화하였다. 참여자는 한국 사회에서 언어적·문화적 차이뿐 아니라, 조선족이라는 이유로 겪는 차별과 편견에 지속해서 노출되었다. 일상생활에서 “조선족은 다르다”라는 시선과 배제, 직장이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오해와 갈등은 참여자에게 소속감 결핍과 정체성 혼란을 더욱 심화시켰다. 특히, 한국에서의 삶은 과거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를 반복적으로 자극했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분노하거나 타인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는 등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이 두드러졌다.

참여자는 자신이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자주 받았고, 한국 사회에서의 소외감과 외로움이 점점 커졌다. 사회적 지지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고, 가족이나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갈등이 반복되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을 탓하며 죄책감과 자기혐오에 시달렸고,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사나”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가끔은 동료들이나 이웃들과 사소한 오해가 생겨도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고, 그 후에는 “내가 또 실수했구나” 하며 자신을 탓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더 커지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소속감의 결핍이 깊어졌다. 한국에서 살아가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어린 시절의 상처와 분노, 그리고 죄책감이 남아 있어, 대인관계에서 진심으로 마음을 열기 쉽지 않은데 후시 있을 변화를 기대하면서 상담에 임하게 되었다.

(2) 상담의 주요 목표 및 내용

이 상담은 어머니에게 받은 깊은 상처를 신앙 안에서 직면하고, 용서와 자기돌봄을 실천함으로써 분노와 죄책감을 해소하고, 자기효능감과 가족 관계, 미래에 대한 희망을 회복하는 치유의 과정이다. 아래 표는 각 회기별로 설정된 주요 목표와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표 5〉 회기별 주요 목표 및 내용

회기	주요 목표 및 내용
1	관계 형성, 어머니의 폭력 경험 및 현재 감정 파악
2	"넌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등 언어폭력의 상처 직면
3	자기혐오, 죄책감, 만성 분노의 근원 탐색, 하나님의 용서 이해 (수직적 차원의 용서)
4	감정 일기, 분노 해소 기법(심호흡, 운동 등) 연습, (가치와, 존중화)
5	어머니의 삶과 고통 이해, 중보기도 시작 (내면적 차원의 용서)
6	용서 선언문 작성, 복수 욕구 포기 (보상무효화)
7	가족과의 대화 시도, 신뢰 회복 연습 (신뢰화, 화해화, 수평적 차원의 용서)
8	자기효능감 회복, 자기돌봄 실천(운동, 취미, 신앙생활)
9	어머니에 대한 내면적 화해, 자기수용 강화
10	상담 종결, 변화 평가, 미래에 대한 소망과 자기관리 계획

(3) 상담 과정 요약

상담 초기: 수직적 차원의 용서를 통해 참여자가 어머니의 폭력과 언어적 학대로 인한 깊은 상처와 분노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과정이 이루어졌다. 수직적 차원의 용서는 절대적 존재로부터 받는 무조건적 용서와 은혜를 의미하며, 참여자는 "넌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너만 없으면 내가 이혼할 수 있었을 텐데"와 같은 어머니의 말로 인해 자신이 존재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여겨온 왜곡된 자기 인식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감정 일기 작성과 자기표현 훈련을 통해 참여자는 자신의 분노, 자기혐오, 우울감을 구체적으로 언어화하고, 그동안 억압해 온 감정들을 안전한 상담 공간에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수직적 용서를 통해 참여자는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어머니의 학대가 자신의 본질적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며 자기 존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기초를 다졌다.

상담 중기: 가치화, 존중화, 보상무효화와 내면적 차원의 용서가 적용되었다. 가치화 과정에서 참여자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가치 있는 것으로 재해석하며, 어머니 역시 고통받는 한 인간으로서 이해하려고 시도하였다. 존중화를 통해 참여자는 자신과 타인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며, 자기수용과 자기효능감을 회복해 나갔다. 보상무효화는 어머니로부터 받기를 원했던 사랑과 인정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고,

그 영향력을 차단하고, 어머니의 과거 책임을 묻지 않는 작업이었다. 참여자는 어머니의 고통과 한계를 이해하려는 시도와 함께 분노 해소 작업, 중보기도, 용서 선언문 작성을 통해 내면적 차원의 용서를 실천하였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는 자신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분노와 원망을 해소하고, 어머니와 자신 모두를 해방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자기수용과 자기효능감이 회복되었고, 가족(아내, 자녀)과의 관계가 개선되며, 자기돌봄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상담 종결: 신뢰화, 화해화, 수평적 차원의 용서가 이루어졌다. 신뢰화 과정에서 참여자는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가족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건강한 관계 맺기를 실천하였다. 화해화는 관계의 회복과 화해를 의미하며, 참여자는 어머니에 대한 내면적 화해를 이루고, 자신과 가족,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호 존중과 이해의 관계를 확립해 나갔다. 수평적 차원의 용서는 인간관계에서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용서로, 참여자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현실적인 화해와 소통의 가능성을 모색하며,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와 미래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는 미래에 대한 소망과 영적 성장을 경험하며, 가족과의 소통이 강화되고, 한국 사회에서도 더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과 능력을 갖추게 되어 상담을 마무리하였다.

(4) 상담 효과 요약

상담 과정에서 참여자는 어머니의 폭력과 언어적 학대가 남긴 깊은 상처와 분노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수용하는 데서 출발했다. 이후 수직적 차원의 용서를 경험하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깨닫고, “존재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왜곡된 자기 인식에서 점차 벗어났다. 감정 일기 작성과 자기표현 훈련을 통해 분노, 자기혐오, 우울감 등 복합적인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연습을 지속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어머니의 학대가 자신의 본질적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 결과 긍정적 자아의 기초를 다지는 데 성공했다.

상담 중기에는 내담자가 고통스러운 경험을 가치화하며 어머니의 한계를 이해하는 과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존중화를 통해 자신과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기르기 시작했다. 보상무효화를 실천하면서 어머니의 인정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았고, 내면적 용서 과정인 중보기도와 용서 선언문을 통해 분노와 원망을 해소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내담자는 자기수용과 자존감을 회복하였으며, 가족 관계의 개선과 자기돌봄 실천도 점차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상담 마무리에는 신뢰화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화해화로 어머니와

의 내면적 화해를 이루며 상호 존중 관계를 확립했고, 수평적 용서를 통해 현실적 관계 정립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최종적으로 참여자는 과거 상처에 매이지 않고 한국 사회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자신감과 더불어 가족 소통 강화, 영적 성장,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참여자는 정서적 자유, 관계 회복을 획득하며 총체적 치유를 경험하였다.

(5) 참여자 피드백 요약

참여자는 상담을 통해 어머니의 폭력과 언어적 학대에서 비롯된 깊은 상처와 분노를 처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경험을 했다고 밝혔다. 수직적 차원의 용서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고, 오랫동안 자신을 “존재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여겼던 왜곡된 자기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감정 일기와 자기표현 훈련을 반복하면서 분노, 자기혐오, 우울감을 구체적으로 언어화하고, 어머니의 학대가 자신의 본질적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었다고 했다. 상담 중기에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가치 있게 재해석하고, 어머니의 한계를 이해하게 되면서 자신과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기를 수 있었으며, 어머니의 인정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내면적 용서 과정을 통해 분노와 원망을 해소하며 자기수용과 자존감을 회복했다고 말했다. 상담 마무리에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어머니와의 내면적 화해를 이루며 상호 존중의 관계를 형성했으며, 수평적 용서를 통해 현실적인 관계 회복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피드백했다. 이 과정을 통해 과거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한국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자신감과 가족 소통, 영적 성장,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되었으며, 정서적 자유와 관계 회복의 성과를 얻었다고 정리했다.

4. 상담 효과의 질적 분석

상담 전 참여자들은 혼란, 분노, 불신, 열등감 등 부정적인 감정이 우세했으나, 상담 과정을 거치면서 감정의 언어화와 자기 이해, 용서 실천, 신뢰 회복을 경험하며 상담 후에는 자기수용, 자존감 회복, 관계 개선,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긍정적 감정이 크게 증진되는 변화를 보였다. 특히 기독교 용서 상담은 참여자가 자신의 상처와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하고, 신앙적 자원인 용서, 기도, 말씀을 활용해 심리적·영적 치유와 관계 회복을 이루는 데 효과적이었다. 안경승의 용서이론은 용서를 가치화, 존중화, 보상무효화라는 단계로 접근해 참여자가 고통을 의미 있게 재해석하고 자신과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상대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도록 돕는다. 실제 상담에서는 감정 일기, 편지 쓰기, 용서 선언문 등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감정 조절과 자기수용,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다. 팀 켈리의 용서이론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용서를 수직적 차원에서 경험하게 하여 참여자가 '용서받은 존재'라는 신앙적 정체성을 내면화하도록 이끈다. 이 과정에서 자기 비난과 수치심이 줄고, 복수심이나 원망을 하나님께 맡기며 내면적 자유를 얻는다. 실제 상담에서는 상담 초기에는 팀 켈리의 수직적 용서로 정체성 회복을 돕고, 중기 이후에는 안경승의 단계별 실천을 통해 감정적 치유와 관계 변화를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두 이론이 상호보완적으로 적용될 수 있었다. 실제 사례에서도 두 이론을 결합할 때 참여자는 과거 상처에서 벗어나 자기 긍정과 관계 회복을 회복하는 효과를 경험했다. 이처럼 기독교 용서 상담은 영적 자원과 심리적 실천이 통합적으로 작용해 참여자의 정서적 자유와 관계 회복, 미래 지향적 성장까지 아우르는 총체적 치유의 길을 제시한다.

1) 사례별 주제 분석

첫 번째 사례(전남편의 외도와 이혼)는 '상실과 자기 정죄, 신앙적 정체성 회복, 내면적 용서와 경계 설정, 공동체 소속감과 미래 희망'이 주요 주제로 나타난다. 참여자는 배우자의 외도와 이혼, 무정자증 등으로 인해 깊은 상실과 자기 비난, '실패한 아내'라는 정체성 혼란을 겪었으나, 상담을 통해 하나님의 무조건적 용서와 사랑을 내면화하며 신앙적 자기 정체성을 회복했다. 감정 일기, 용서 선언문, 기도와 묵상을 통한 내면적 용서 실천, 전남편과의 건강한 경계 설정, 교회 소그룹 및 봉사활동 참여를 통한 공동체 소속감 회복,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기효능감 증진이 핵심 변화로 드러났다.

두 번째 사례(어머니의 비교와 비난)는 '열등감과 자기 비난, 감정표현의 어려움, 자기수용과 자존감 회복, 어머니와의 관계 재구성, 긍정적 양육 동기'가 주된 주제다. 참여자는 반복된 비교와 비난으로 인해 낮은 자존감과 감정표현의 어려움을 겪었으나, 상담을 통해 수직적 용서와 감정 언어화, 자기 확인, 자기표현 훈련을 거치며 자기 비난에서 벗어나고 자기수용과 자존감을 회복했다. 어머니의 한계와 상처를 이해하고, 기대를 내려놓는 보상무효화, 내면적 용서 실천을 통해 어머니와의 관계를 재구성했으며, 자녀에 대한 긍정적 양육 동기를 강화하는 변화가 나타났다.

세 번째 사례(어머니의 폭력)는 '심리적 상처와 분노, 존재 가치의 재확인, 내면적 용서와 자기해방, 가족 관계 개선, 영적 성장과 미래 희망'이 주요 주제로 분석된다.

참여자는 어머니의 폭력과 언어적 학대로 인해 “존재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왜곡된 자기 인식과 분노, 자기혐오, 우울감을 경험했으나, 상담 과정에서 수직적 용서와 감정 언어화, 자기표현 훈련을 통해 존재 가치를 재확인했다. 가치화, 존중화, 보상무효화, 내면적 용서를 거치며 분노와 원망을 해소하고 자기해방을 경험했으며, 가족과의 소통 강화, 내면적 화해, 영적 성장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되는 변화가 나타났다.

이처럼 각 사례는 상실과 자기 정죄, 열등감과 자기 비난, 심리적 상처와 분노 등 각기 다른 부정적 정서와 관계 문제에서 출발해, 상담 과정에서 신앙적 자원과 용서 이론의 단계적 적용을 통해 자기수용, 관계 회복, 미래 희망이라는 긍정적 주제로 전환되는 공통적 치유 과정을 보여준다.

2) 교차사례분석

공통 주제 및 변화 과정: 세 사례 모두 상담 전에는 혼란, 분노, 자기 비난, 열등감 등 부정적 감정이 우세했으며, 가족 내 상처(배우자 외도, 어머니의 비교·비난, 어머니의 폭력)로 인해 자기 정체성의 혼란과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었다. 상담 과정에서 감정의 언어화, 자기 이해, 용서 실천, 신앙적 자원 활용(기도, 말씀, 공동체 등)을 통해 자기수용과 자존감 회복, 관계 개선,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는 긍정적 변화를 경험했다. 특히, 팀 켈러의 수직적 용서와 안경승의 단계적 용서이론(가치화, 존중화, 보상무효화)이 모두 사례에 적용되어 신앙적 정체성 회복과 구체적 감정 치유, 관계 회복을 촉진했다.

사례별 특징적 차이: 전남편의 외도 사례는 ‘상실감, 자기정죄, 신앙적 정체성 회복, 내면적 용서, 경계 설정, 공동체 소속감’이 두드러진다. 배우자의 외도와 이혼, 무정자증 등으로 인한 자기 비난과 상실을 신앙적 자원(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과 공동체 지지로 극복하며, 전남편과의 건강한 경계 설정과 사회적 소속감 회복에 초점을 두었다. 어머니의 비교와 비난 사례는 ‘열등감, 자기 비난, 감정표현의 어려움, 자기수용, 어머니와의 관계 재구성, 긍정적 양육 동기’가 중심이다. 반복된 비교와 비난으로 인한 낮은 자존감과 감정표현의 어려움이 상담을 통해 자기 이해와 자기수용, 어머니의 한계 이해, 긍정적 양육 실천 동기로 전환되었다. 어머니의 폭력 사례는 ‘심리적 상처, 존재 가치의 재확인, 내면적 용서, 자기해방, 가족 관계 개선, 영적 성장’이 주요하다. 극심한 폭력과 학대로 인한 자기혐오와 분노를 감정 언어화와 용서 실천으로 해소하고, 존재 가치를 재확인하며 가족과의 소통 및 내면적 화해, 영적 성장으로 이어졌다.

교차적 통찰 및 시사점: 세 사례 모두 상담 초기에는 자기 정죄·분노·불신 등 부정

적 정서가 강했으나, 상담 중기 이후 용서의 단계별 실천과 신앙적 자원 활용을 통해 자기 긍정, 관계 회복, 미래 희망이라는 공통적 치유 과정을 밟았다. 그러나 사례별로 상실감(배우자 외도), 열등감(비교와 비난), 존재 불안(폭력) 등 상처의 유형과 치유의 경로, 상담에서 강조된 개입(예: 경계 설정, 양육 동기, 자기해방)의 세부 내용은 달랐다. 이를 통해 상담 실무에서는 참여자의 상처 맥락과 개인적 자원(신앙, 공동체 등)에 따라 맞춤형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교차 사례 분석은 각 사례의 변화 과정을 비교함으로써, 상담의 효과와 치료적 기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유사 사례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높여준다.

3) 주요 목표 및 내용 분석

세 사례의 상담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목표는 참여자의 부정적 정서 치유, 자기 정체성 회복, 관계 개선, 그리고 미래 지향적 성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사례(전남편의 외도)는 상실감과 자기 정체성에서 벗어나 신앙적 정체성을 회복하고, 내면적 용서와 건강한 경계 설정을 통해 감정적 자유와 사회적 소속감을 얻는 것이 핵심 목표였다. 이를 위해 감정 일기, 용서 선언문, 기도와 묵상, 공동체 활동 등이 주요 내용으로 활용되었다. 참여자는 자신의 상처와 분노를 안전하게 표현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내면화하며, 전남편과의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태도를 기르고, 교회 소그룹과 봉사활동을 통해 자기효능감과 미래 희망을 회복했다.

두 번째 사례(어머니의 비교와 비난)는 열등감과 자기 비난, 감정표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기수용과 자존감 회복, 어머니와의 관계 재구성, 긍정적 양육 동기 강화가 주요 목표였다. 상담 내용은 수직적 용서의 경험, 감정 일기와 자기 확인, 자기표현 훈련, 가치화·존중화·보상무효화, 어머니에게 편지 쓰기와 용서 선언문 작성 등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는 어머니의 한계를 이해하고 기대를 내려놓으면서 자기수용을 이루고, 자녀에게 긍정적 양육을 실천하려는 동기를 갖게 되었다.

세 번째 사례(어머니의 폭력)는 심리적 상처와 분노 해소, 존재 가치의 재확인, 내면적 용서와 자기해방, 가족 관계 개선, 영적 성장과 미래 희망 회복이 목표였다. 상담에서는 감정 일기와 자기표현 훈련, 가치화·존중화·보상무효화, 중보기도와 용서 선언문 작성, 가족과의 소통 강화, 신뢰화·화해화, 수평적 용서가 주요 내용으로 다루어졌다. 참여자는 어머니의 폭력과 학대에서 비롯된 자기혐오와 분노를 언어화하고, 존재 가치를 재확인하며, 가족과의 내면적 화해와 현실적 관계 회복, 영적 성장과 미래 희망을 경험했다.

이처럼 세 사례 모두 상담의 핵심 목표는 참여자가 부정적 감정과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자기 이해와 자기수용을 이루며, 건강한 인간관계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었다. 상담 내용과 개입 전략은 각 사례의 상처 맥락에 따라 달랐지만, 감정의 언어화, 용서 실천, 신앙적 자원 활용, 자기 정체성 강화, 관계 회복이라는 공통된 치료적 흐름이 나타났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을 통해 내담자는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소속감, 그리고 희망을 회복하는 변화를 경험했다.

4) 상담 과정 분석

세 사례의 상담 과정은 참여자의 초기 부정적 정서와 상처를 안전하게 다루고, 점진적으로 자기 이해와 자기수용, 관계 회복, 미래 지향적 성장으로 이끄는 구조적 흐름을 보인다. 상담 초기에는 신뢰 관계 형성과 감정의 언어화가 핵심이었다. 참여자는 혼란, 분노, 자기 비난, 열등감 등 다양한 부정적 감정을 상담자와의 공감적 대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했고, 감정 일기나 자기표현 훈련 등 실질적 도구를 활용하여 억압된 감정을 인식하고 드러내는 연습을 했다. 이 단계에서는 팀 켈러의 수직적 용서 개념이 적용되어 신앙적 자원(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과 용서)을 통해 참여자가 자기 존재의 가치를 재인식할 수 있도록 도왔다.

상담 중기에는 안경승의 가치화, 존중화, 보상무효화와 팀 켈러의 내면적 용서가 단계적으로 적용되었다. 참여자는 자신의 고통과 상처를 가치 있게 재해석하고, 자신과 타인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상대방(어머니나 배우자)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보상무효화를 실천하였다. 이 과정에서 편지 쓰기, 용서 선언문 작성, 중보기도 등 구체적 실천을 통해 내면에 쌓인 분노와 원망을 해소하고 자기해방을 경험했다. 자기수용과 자존감이 회복되면서, 참여자는 가족이나 주변인과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 행동 변화(예: 건강한 경계 설정, 긍정적 양육 실천, 봉사활동 참여 등)를 시도했다.

상담 마무리에는 수평적 용서, 신뢰화, 화해화가 이루어졌다. 참여자는 어머니나 전남편과의 현실적 관계에서 소극적 유대(명절 인사 등)나 건강한 경계 설정을 실천하며,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필요와 한계를 명확히 표현하는 능력을 키웠다. 교회 소그룹이나 공동체 활동, 봉사 등 사회적 소속감과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경험을 통해, 참여자는 과거 상처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주체적 삶의 설계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전반적으로 상담 과정은 참여자의 감정 조절, 자기 정체성 강화, 관계 회복, 미래 지향적 성장이라는 단계별 목표에 따라 맞춤형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

졌으며, 신앙적 자원과 심리적 실천이 통합적으로 작용해 총체적 치유를 끌어냈다.

5) 참여자 피드백 분석

세 사례의 참여자 피드백을 분석하면, 상담 과정에 대한 참여자 피드백을 분석한 결과, 정서적 치유와 자기 인식의 변화, 관계 회복, 미래 지향적 성장에 실질적인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첫 번째 사례의 참여자는 상담을 통해 자기 정죄와 상실감에서 벗어나 신앙적 정체성을 내면화하고 감정적으로 자유로워졌다고 평가했다. 또한 실천 활동과 교회 소그룹 참여를 통해 분노와 자기 비난을 해소하고, 사회적 소속감과 자기 효능감, 미래에 대한 희망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갖게 되었다.

두 번째 사례(어머니의 비교와 비난)는 참여자가 상담을 통해 반복된 비교와 비난에서 비롯된 열등감과 자기 비난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임을 받아들여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감정 일기, 자기 확인, 자기표현 훈련을 통해 내면의 감정을 언어화하고 자기수용이 가능해졌으며, 어머니의 한계와 상처를 이해하고 기대를 내려놓으면서 어머니와의 관계를 재구성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자녀에 대한 긍정적 양육 동기가 강화되고, 자기효능감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커졌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언급했다.

세 번째 사례(어머니의 폭력)는 참여자가 상담을 통해 어머니의 폭력과 언어적 학대에서 비롯된 자기혐오와 분노를 처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경험을 했다고 피드백했다. 수직적 용서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고, 오랫동안 자신을 “존재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여겼던 왜곡된 자기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감정 일기와 자기표현 훈련, 편지 쓰기와 용서 선언문, 증보기도 등 구체적 실천을 통해 분노와 원망을 해소하고 자기해방을 경험했으며, 가족과의 소통 강화, 내면적 화해, 영적 성장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되었다고 밝혔다.

세 사례 모두에서 참여자는 상담을 통해 과거의 상처와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기수용과 대인관계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었다. 또한 신앙적 자원과 용서 실천이 참여자들에게 정서적 자유를 제공하고, 주체적인 삶을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상담이 심리적 치유와 더불어 삶의 방향성을 새롭게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6) 상담 효과 분석

세 사례와 관련 문헌을 종합하면, 상담은 참여자의 정서적·인지적 변화, 자기수용,

관계 개선, 삶의 만족도 및 기능 회복 등 다차원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난다. 상담 전 참여자들은 혼란, 분노, 자기 비난, 열등감, 불신 등 부정적 감정이 우세했고, 가족 내 상처와 자기 정체성 혼란,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상담 과정에서 감정의 언어화와 자기 이해, 용서 실천, 신앙적 자원 활용(기도, 말씀, 공동체 등)이 이루어지면서, 참여자들은 점차 부정 감정의 감소와 긍정 감정의 증진, 자기수용과 사고의 유연성 향상, 대인관계 개선과 미래에 대한 희망 등 다양한 긍정적 변화를 경험했다.

특히, 감정 일기, 자기표현 훈련, 용서 선언문과 같은 구체적 실천은 억압된 감정의 해방과 자기 이해를 촉진했고, 신앙적 용서(수직적·내면적·수평적 용서)는 자기 정체성의 재구성과 심리적·영적 치유에 효과적이었다. 상담 중기 이후에는 참여자가 자신과 타인의 한계를 인정하고 기대를 조정하며, 건강한 경계 설정과 새로운 대인관계 행동을 시도하는 등 실질적인 행동 변화가 나타났다. 상담 마무리에는 자기효능감과 미래에 대한 소망, 주체적 삶 설계 역량이 강화되었고, 가족 및 사회적 소속감, 영적 성장까지 확장되는 결과가 확인됐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외 상담 효과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효과 범주(정서 변화, 자기수용, 사고의 변화, 일상 기능 회복, 대인관계 향상)와 일치하며, 상담이 단순한 감정 정화에 그치지 않고, 자기 이해와 통찰, 행동 변화, 삶의 만족도 증진 등 총체적 변화를 끌어내는 치료적 개입임을 뒷받침한다. 결론적으로, 세 사례 모두 상담을 통해 참여자는 과거 상처와 부정적 감정에서 벗어나 자기 긍정과 관계 회복, 미래에 대한 희망을 회복하는 등 심리적·사회적·영적 차원의 실질적 상담 효과를 경험했다.

결론적으로, 기독교 용서 상담은 참여자의 상처와 삶의 맥락에 맞는 맞춤형 접근을 통해 정서적 자유, 자기 긍정, 관계 회복, 미래 지향적 성장이라는 총체적 치유의 길을 제시하며, 심리적·영적 통합 상담의 효과와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III. 닫는 글

1. 기독교 용서의 치유적 효과

조선족 이주민은 이중문화 적응, 사회적 차별, 가족 구조 변화 등 복합적인 환경에서 우울, 불안, 자기 비난, 대인관계의 어려움, 정체성 혼란 등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며, 가족 내 세대 갈등이나 사회적 소외 역시 트라우마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참여자의 심리적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는 안경승의 단계적 용서이론과 팀 켈러의 신학적 용서이론을 통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안경승의 이론은 상처를 재해석해 의미를 부여하는 가치화, 자신과 타인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존중화, 그리고 상대의 인정이나 사랑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보상무효화의 과정을 통해 참여자가 감정 일기, 편지 쓰기, 용서 선언문 등 구체적인 실천을 하며 분노와 원한을 해소하고 자기수용과 관계 회복을 이루도록 돕는다(An, 2011). 팀 켈러의 용서이론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를 경험하는 수직적 용서를 통해 참여자가 '용서받은 자'라는 신앙적 정체성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하며, 복수심이나 원망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면적 용서를 실천하게 한다(Keller, 2022). 또한 현실적 관계 회복을 위한 수평적 용서를 강조해, 참여자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화해와 포용의 태도를 보이게 한다. 상담 초기에는 팀 켈러의 수직적 용서를 통해 참여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확립하고, 감정 일기 등으로 자신의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하는 데 집중한다. 중기에는 안경승의 가치화와 존중화 과정을 통해 상처를 문화적·관계적 맥락에서 재해석하고 자기수용을 강화하며, 중보기도와 용서 선언문을 통해 분노와 원망을 해소한다. 마무리에는 보상무효화와 수평적 용서를 통해 가족이나 타인과의 건강한 경계 설정, 공동체 활동 참여 등으로 사회적 소속감과 관계 회복을 경험하게 한다. 이러한 통합적 상담은 참여자가 분노, 우울, 자기비난에서 벗어나 자존감과 자기효능감을 회복하고, 가족 및 사회와의 관계를 개선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과 주체적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독교 용서 상담은 조선족 이주민의 복합적 심리 문제를 총체적으로 치유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접근임을 보여준다.

2. 상담적 실천적 제안

조선족 이주민 등 문화적 소수자를 위한 기독교 용서 상담의 실천적 접근은 이론적 통합, 문화적 맞춤 전략, 그리고 구조화된 상담 프로그램 개발이 필수적이다. 상담 초기에는 팀 켈러의 수직적 용서 개념을 활용해 참여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인식하도록 돕고, 감정 일기와 신뢰 형성을 통해 참여자가 자신의 상처와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경승의 가치화와 존중화 단계에서는 참여자가 자신의 상처를 문화적 맥락에서 재해석하고, 자신과 타인의 불완전함을 수용하며 자기 존중감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기에는 내면적 용서와 보상무

효화 과정을 통해 참여자가 복수심이나 원망을 하나님께 맡기고, 편지쓰기와 용서 선언문, 중보기도 등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분노와 원망을 해소하며 자기수용을 경험하도록 돕는다. 마무리에는 보상무효화와 수평적 용서를 통해 가족이나 타인과의 건강한 경계 설정, 교회 소그룹 활동, 지역 네트워크 참여 등으로 사회적 소속감과 관계 회복을 경험하게 한다. 상담자 교육에서는 성경적 용서와 문화적 감수성의 통합을 강조하고, 이주민의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교회와 상담 기관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이주민을 위한 예배, 구제기금, 쉼터, 자매결연, 의료·법률·인권 상담 등 실질적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10회기 상담 프로그램은 신뢰 구축, 감정 인식, 용서 개념 이해, 상처 재해석, 분노 해소, 편지쓰기, 역할극, 신뢰 회복, 화해 계획, 미래 소망 설정 등 단계별 목표와 기법을 구조화해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통합적 상담 모델은 이주민의 심리적 치유와 관계 회복, 영적 성장, 사회적 적응을 동시에 지원하며, 교회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복음적 선교, 예방적 지원, 문화적 민감성, 공동체적 돌봄까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방향을 제시한다.

3. 한계와 과제

조선족 이주민 등 문화적 소수자를 위한 기독교 용서 상담은 다양한 심리·사회적 어려움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지만, 실제 현장 적용에서는 여러 한계와 과제가 존재한다. 첫째, 용서 상담은 기독교적 덕목으로 강조되지만, 참여자가 실제로 용서를 실천하기까지는 분노, 상처, 억울함 등 복합적 감정의 충분한 직면과 정서적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 성급한 용서나 말씀 중심의 압박은 오히려 참여자의 진정한 치유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피해 감정의 정직한 수용과 충분한 시간 제공이 필수적이다.

둘째, 다문화 상담 현장에서는 언어적·문화적 차이로 인해 상담자가 참여자의 감정과 경험을 온전히 이해하고 진심으로 공감하는 데 필연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상담자와 참여자 사이의 문화적 배경, 언어, 가치관의 차이는 상담 과정에서 미묘한 감정 표현이나 의미 전달이 왜곡되거나 오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참여자가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고, 상담자에게 방어적이거나 소극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커진다. 결과적으로 상담의 효과가 제한될 수 있으며, 신뢰 형성과 심층적 치유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다문화 상담자 자체의 전문성, 문화적 역량, 장기적 경험 부족도 현장의 중요

한 한계로 꼽힌다. 상담자 교육과정에서 문화적 감수성, 언어 능력, 현장 경험에 대한 체계적 훈련이 여전히 미흡하며, 상담 인력의 잦은 이직과 단기 근속 역시 상담의 연속성과 신뢰 형성에 장애가 된다. 넷째, 상담을 찾는 이주민 참여자 다수가 자발적 동기보다는 가족이나 기관의 권유 때문에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상담 효과의 지속성과 변화 동기 유발에 한계가 있다.

넷째, 국내 다문화 상담 연구는 아직 양적 실태조사에 머무르는 경향이 강하고, 실제 상담 경험과 효과에 대한 질적·장기적 연구가 부족하다. 상담 현장에 맞는 문화적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검증, 상담자-교회-지역사회 간 네트워크 구축, 상담자 교육의 전문화와 지속적 슈퍼비전, 내담자의 자발성 및 장기적 변화 촉진 방안 마련 등이 앞으로의 주요 과제다. 용서 상담은 내담자가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책임 있게 다루며, 내면의 힘과 자율성을 회복하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하며, 교회와 상담기관은 전통적 기독교 메시지(용서, 감사, 은혜)를 심리학적·문화적 맥락과 통합하여 총체적 치유를 실현할 수 있는 실천적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보완해 나가야 한다.

본 논문은 조선족 이주민이 겪는 이중문화 적응, 사회적 차별, 가족 구조 변화 등 복합적인 환경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어려움과 대인관계 문제에 대해 기독교 용서 상담의 통합적 접근이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 안경승의 단계적 용서 이론과 팀 켈러의 신학적 용서 이론을 함께 적용함으로써, 내담자는 감정의 안전한 표현, 자기수용, 분노와 원망의 해소, 건강한 관계 회복, 신앙적 정체성 확립을 경험할 수 있었다. 또한 상담 실천에서는 문화적 맞춤 전략과 단계별 상담 프로그램, 교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은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제한된 사례와 질적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조선족 이주민 집단 내의 다양한 나이, 성별, 종교적 배경, 가족 형태, 이주 경로 등 세부적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둘째, 단기적 상담 효과에 주로 주목하여 용서 상담의 변화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지에 대한 추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셋째, 기독교 용서 상담에 집중한 나머지, 타종교나 비신앙적 접근과의 효과 비교, 다문화적 신념 차이에 따른 상담 반응 차이 등은 다루지 못했다. 넷째,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언어·문화적 차이, 신뢰 형성의 실제적 어려움, 상담자 역량의 다양성 등 현장 적용의 한계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부족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가 필요하다. 첫째, 용서 상담 프로그램 참여자의 심리적·관계적 변화가 시간 경과에 따라 어떻게 유지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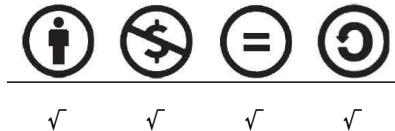
고 심화하는지에 대한 장기적 추적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조선족 이주민 외에도 다양한 문화적 소수자 집단을 대상으로 기독교 용서 상담의 적용 가능성과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불교, 무속, 세속적 심리치료 등과 기독교 용서 상담의 효과를 비교·분석하여, 문화적·종교적 맥락에 따른 상담 전략의 차별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다문화 상담자의 전문성, 문화적 감수성, 언어 역량 강화 방안과 교회-지역사회-전문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모델 개발에 관한 실증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상담 참여자의 자발적 동기 유발과 상담 효과의 내면화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한 동기 촉진 전략 및 프로그램 개발도 중요한 후속 과제다.

이와 같은 후속 연구를 통해 기독교 용서 상담의 이론과 실체가 더욱 심화하고, 조선족 이주민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적 소수자 집단의 심리적 치유와 사회적 통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논문 투고일: 2025년 05월 24일

•논문 수정일: 2025년 07월 07일

•게재 확정일: 2025년 07월 13일



【참고문헌】

- 김명숙 (2012). 연변지역 조선족 아동과 한족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상담학연구**, 13(3), 1141-1157.
- 김은정, 김현수 (2022). 재한 중국인(조선족) 상담자의 전문직 정체성 형성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상담학연구**, 23(1), 123-145. <https://doi.org/10.21327/cs4.2022.23.1.123>
- 김정훈, 박영희 (2021). 조선족 이주민의 대인관계 문제와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사회복지학**, 73(2), 115-137.
- 김혜련, 김현주 (2015). 다문화 상담에서의 문화적 역량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4), 765-784.
- 박상수 (2017). 재한 조선족의 이주와 정착: 현황과 과제. **한국이민학회보**, 37, 49-72.
- 박성주 (2021). 문제해결상담 집단프로그램이 중국유학생의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22(2), 123-145.
- 박우 (2011). 한국의 “재한조선족” 연구 현황.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4), 747-766.
- 박지훈 (2022). 조선족 이주민의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상처. **사회문제연구**, 18(2), 201-220.
- 송지영 (2008). 이주민의 문화 적응과 우울, - 조절자로서 차별 경험의 역할. **생명연구**, 67, 51-70.
- 안경승 (2006). **용서의 용기**. 서울: 그리심(한국로고스연구원).
- 장명희, 신영규 (2019). 이주민 통번역사의 한국 정착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3(2), 77-95.
- 전은주 (2024). 시치료 프로그램이 재한 조선족 성인의 심리적 안정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예술치료연구**, 31(2), 101-120.
- 조영달, 김은정 (2010). 재한 조선족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삶의 질. **한국사회학**, 44(2), 89-120.
- 주은선, 김정훈, 박영희 (2010). 결혼이주여성 대상 다문화 상담 관련 종사자들의 현장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4), 817-846.
- 최인애 (2013). 재한 중국조선족 이주여성의 가족해체 경험과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2), 1-19.

- Braun, V., & Clarke, V.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77-101. <https://doi.org/10.1191/1478088706qp063oa>
- Collins, G. R. (2008). **뉴크리스천 카운슬링** (한국기독교상담심리치료학회 역, *Christian counseling* 3rd ed.). 서울: 두란노서원. (원전 2007 출판)
- Creswell, J. W., & Creswell, J. D. (2018). *Research design: Qualitative, quantitative, and mixed methods approaches* (5th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Enright, R. D., & Fitzgibbons, R. P. (2015). *Forgiveness therapy: An empirical guide for resolving anger and restoring hope* (2nd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Enright, R. D., & Fitzgibbons, R. P. (2011). **용서심리학** (방기연 역, *Helping clients forgive*).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전 2000 출판).
- Fawcett, M. L. (2010). 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y development with a counselor education immersion experience in Guatemala. *Journal for International Counselor Education, 2*, 1-14.
- Keller, T. (2022). *Forgive: Why should I and how can I?* New York, NY: Viking.
- Worthington, E. L., Jr. (2005). *Handbook of forgiveness*. New York, NY: Routledge.
- 도니와 블로그. <https://blog.naver.com/doniwa/221230123456>에서 2025년 5월 24일 인출.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50618162100371>에서 2025년 5월 22일 인출.
- EncyKorea.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68435>에서 2025년 5월 22일 인출.

[Abstract]

A Case Study of Christian Forgiveness Counseling for Korean Chinese Migrants

Hwang, Cheol*

This study analyzes Christian forgiveness counseling for Korean-Chinese migrants by integrating Kyung-Seung Ahn's five-stage forgiveness theory—valorization, respect, invalidation of compensation, trust, and reconciliation—with Tim Keller's concepts of vertical, internal, and horizontal forgiveness. Three participants, each having endured interpersonal wounds such as marital infidelity, divorce, parental criticism, and experiences of verbal or physical abuse, participated in ten 60-minute counseling sessions from March to May 2024. The counseling process included emotional journaling, forgiveness declarations, letter writing, and prayer as core techniques. At each stage, participants explored their emotions and wounds, fostering both spiritual reflection and personal insight. All participants showed positive changes, including improved emotional expression, restored self-efficacy, better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increased hope for the future. The combined application of Ahn's and Keller's theories proved effective for both psychological recovery and spiritual healing, supporting the restoration of fractured and strained relationships. This research underscores that Christian forgiveness counseling can play a vital role in the psychological recovery, social adaptation, and interpersonal growth of cultural minorities, while also highlighting the need for developing culturally sensitive counseling programs.

Key words: Korean-Chinese immigrants, Christian counseling intervention, identity reestablishment, cultural adapta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issues

* Best Counseling Center / Counselor